

# 소설과 영화...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시간

### '20세기 소설영화 독본' 내년 상반기 프로그램 공개 1월19일 '위대한 유산' 첫 만남...광주극장 영화의집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파이 이야기' 등

영화 칼럼니스트 조대영이 지난 2009년 꾸린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원작소설을 읽고 이를 영화화한 작품을 함께 감상한 후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의 고전은 물론 '치니들, 자살하다', '협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등 현대 소설까지 수많은 작품을 다뤘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 2022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위대한 유산', '파이 이야기', '파리대왕', '노마드랜드' 등을 만나는 모임의 첫 일정은 오는 2022년 1월 19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시작되며 이후 격주 주요 일마다 진행된다.

상반기 첫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다. '팝'이라는 고아 소년의 성장과정을 담담하게 그려준 해학과 풍자,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위대한 유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에단 호크와 기네스 펠트로가 보여주는 연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2월16일 두번째 시간에는 '위대한 개츠비' 작가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원작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를 만난다. 데이빗 핀처 감독이 제작하고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영화는 1918년 80세의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벤자민 버튼'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스토리다.

안 마텔의 '파이 이야기'와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는 3월 2일 다룬다. 2002년 제34회 부커상 수상작인 '파이 이야기'는 열여섯 살 인도 소년 파이가 겪은 227일간의 표류기를 그리고 있

다. 2012년 개봉한 '라이프 오브 파이'는 결말과 해석이 다양하게 나뉘며 더욱 관심을 받은 작품으로 8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촬영상·음악상·시각효과상, 66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촬영상·특수시각효과상 등을 수상했다.

'혹성탈출' (3월16일)도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원작소설은 프랑스 소설가 피에르 불이 1963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진화한 유인원과 퇴화된 인간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다룬다. 이 작품을 바탕으로 프랭클린 J. 사프너가 총 7편의 '혹성탈출 영화' 중 최초의 작품인 '혹성탈출'을 제작했다. 영화는 20세기, 지구를 떠나 어느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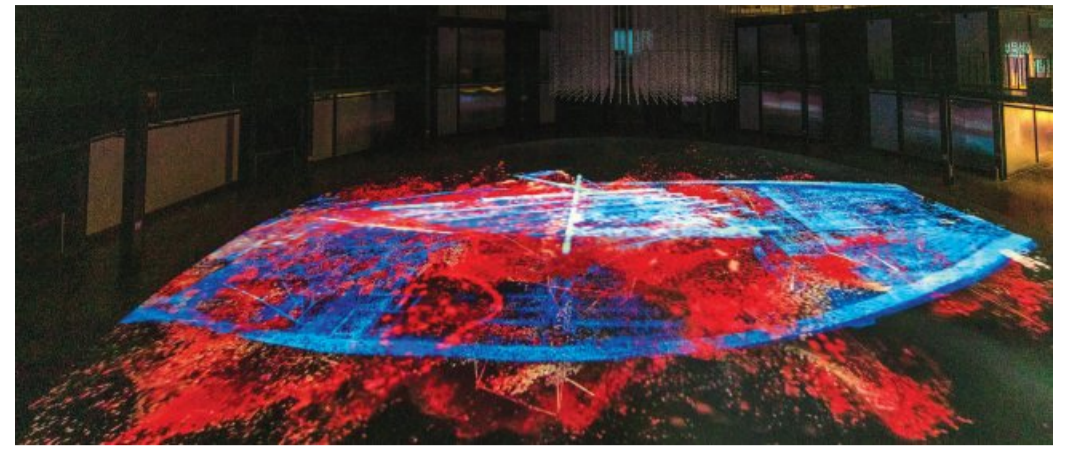
명을 이루고 있는 원숭이들과 충돌하는 과정을 그린다.

'공기인형',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을 제작한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걸어도 걸어도' (4월20일)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원작소설과 영화 모두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이며, 장남의 기일에 모인 요코야마가의 1박2일을 통해 가족간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실제 히로카즈 감독이 암마가 돌아가신 후 밀려드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인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기도 했다.

스웨덴의 무명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을 단숨에 베스트 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오베라는 남자'는 5월4일 다룬다. 소설은 한국에서도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 2015년 가장 많이 팔린 소설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소설의 인기로 힘입어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품은 고집불통 까칠남 '오베'가 기상천외한 이웃들과 부딪히며 생긴 일들을 유쾌하게 그렸다.

이밖에 '파리대왕',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도리안 그레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삼총사', '아이언 마스크' 등을 읽고 보며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문의 010-4660-579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ACC에서 오는 1월 16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 해양실�크로드와 신안선'

(ACC 제공)

## 3D로 만나는 보물선

### ACC, 1월16일까지 신안선·도자유물 전시

신안선은 14세기 중국에서 일본을 향하던 중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무역선이다.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가 건져 올린 도자기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 수준 발굴 첫 보물선으로 당시 '세기의 발견'이라 불렸다. 발굴된 선체와 2만 7000여 점의 도자유물은 당시 아시아의 생활상과 문물교류를 가능할 수 있는 귀한 문화유산이다.

당시 난파선과 해저유물을 3차원 입체자료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신안선을 활용한 전시를 오는 1월 16일까지 개최한다.

'보물선을 깨우다, 아시아 해양실�크로드'라는 주제로 ACC 문화장조원 복합2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신안선과 도자유물을 3D 데이터를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난파선 선체가 소실되고 복원되는 과정을 비롯해 바

닷속 역동적 환경을 가상으로 재현한 점이 특징이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상호작용 콘텐츠에 주목했다.

문화유산에 실감기술을 접목해 콘텐츠를 발굴해온 ACC의 디지털헤리티지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ACC 창작제작센터,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주)사일로랩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했다. 콘텐츠는 문화유산 3D스캔 정보를 포인트클라우드 데이터(3차원위치정보를 가진 점의 집합 데이터)로 재가공해 실감형으로 시각화했다.

한편 ACC는 지금까지 아시아의 전통 교육 '통코난 VR', 아시아의 석탑 '탁티바하 VR', 아시아의 몸짓 '비비런 실감공연' 등 실감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무료 관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또 다른 시작' 새해 첫 국악상설공연 펼쳐진다

### 1월14일 주소연 판소리보존회...루트머지, 굿패마루 등

지난 2019년 시작해 지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국악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광주국악상설공연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2022년 광주국악상설공연 첫 행사가 1월 4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향산 주소연 판소리보존회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주제로 결구패가 결구를 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갈 때 마을 입구에서 치는 굿인 '문굿'을 선보인다. 이어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 설움 대목', 강렬하고 신비한 예술세계를 표현한 '죽원무' 등 신년을 축원하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펼친다.

6일에는 루트머지가 '만사형통 기원 콘서트'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북청사자놀이와 고성오광대 말뚝이 역할을 통해 현대의 이야기를 풍자한 액막이 굿 '사자가 내려온다'를 시작으로, 국악가요, 사물판굿, 소고무 등 2022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작품을 연달아 무대에 올린다.

29일에는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신년맞이 '어울림더울림'이라는 주제로 판놀음, 전통연희놀이 등 희망과 활력을 주는 무대를 펼친다. 더불어 관객과 함께 하는 농심줄놀이 무대를 통해 풍류와 예향의 광주가 국악을 통해 발전과 승승장구하도록 기원하는 공연을 한다.

이 밖에도 지역 민간예술단체의 사물놀이, 국악



광주국악상설공연

가요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13-8379.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故 이매방·임이조 춤인생

### '무형유산 기증자료집' 발간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춤 외길을 걷다 세상을 떠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매방과 임이조의 유족이 기증한 자료를 정리한 '무형유산 기증자료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 출신 이매방(1927~2015)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 보유자로, 다양한 전통춤을 알린 '한국춤의 거목'이었다. 이매방의 제자인 임이조(1950~2013)는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승 교육사로 활동했고, 여러 작품을 창작한 안무가이기도 했다.

자료집에는 이매방의 1970년대 공연 사진과 흥보물, 살풀이춤 복식, 재봉틀과 의상 제작 도구 등

1천73건이 소개됐다. 임이조 관련 자료는 공연 사진, 승무 복식, 공연 소품 등 2천728건에 관한 정보가 수록됐다.

중요한 자료는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목록에 담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누리집(nihc.go.kr)을 통해 자료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故 이매방이 사용한 재봉틀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신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40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역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